

『交隣須知』를 통한 일본어 통시적 연구(2)*

— 尊敬表現을 중심으로 —

片 茂 鎮**

(e-mail: mjpyon@dankook.ac.kr)

目 次

1. 시작하기
 2. 現伝하는 『交隣須知』의 諸本
 3. 일본 근대시기의 존경표현 체계
 4. 『交隣須知』의 존경표현
 - 4-1. 校訂本에서 사용되지 않은 존경표현
 - 4-2. 校訂本에서 사용된 존경표현
 5. 마무리
-

1. 시작하기

18세기 초에 일본에서의 최초의 한국어 학습서로 성립된 『交隣須知』는 약 200여 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인 한국어 학습서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異本이 존재하는데, 이는 당연히 한일 양국어의 통시적 연구자료로서 절호의 가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서가 가지는 이와 같은 특수한 성장 과정 및 対訳이라는 형식적 특징으로 인하여, 『交隣須知』의 연구는 그 언어의 ‘時代性’과 ‘地域性’, 그리고 ‘対訳性’의 규명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 본 연구는 201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단국대학교 교수, 일본어학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¹⁾.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交隣須知』가 가지는 독특한 자료적 가치를 활용한 한일어 연구의 연장선에서, 일본어의 敬語 중 尊敬表現에 대하여 江戸時代로부터 明治時代까지의 변화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연구방법은 苗代川本에서의 존경표현이 古写本類와 増補本類, 그리고 初刊本을 거쳐 校訂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변화된 존경표현 형식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交隣須知』日本語의 시대적 성격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도록 한다²⁾.

물론 「일본어의 시대성」이라고 해도, 対象이 언어인 만큼 각각의 시대별로 언어(일본어)의 경계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江戸 後期の 江戸語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전의 전통적인 上方語와 東國語(關東方言)이 融合·混和되는 과정을 거쳐 江戸 共通語로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小松1985:84 참조), 江戸語 안에도 上方語的인 요소가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江戸語」라고 하는 것은 일단 「上方語」에 대한, 「上方語」에서 본 江戸語的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交隣須知』日本語의 존경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現伝하는 『交隣須知』의 諸本

지금까지 알려진 『交隣須知』의 異本은 다음과 같다³⁾.

【写本】

《古写本類》(《原祖本系》)

1. 交隣須知 4卷 書写期不明(19世紀初?), 京都大学所蔵; 苗代川本 ⇒<苗>

- 1) 특히 본서의 ‘대역성’에 대해서는 편무진(2006, 2007, 2012) 참조. 그리고 ‘지역성’에 대해서는 小倉(1915), 迫野(1989, 2001), 편무진(2006) 등 참조.
- 2) 『交隣須知』의 언어에 대해서는 일찍이 校訂本の 교정자인 前間恭作씨가 小倉進平씨에게 보낸 서한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교통의 공식 응접에 사용되는 당시의 표준어’라는 인식을 표명한 적이 있다(小倉1936:15 참조). 따라서 『交隣須知』의 일본어도 対馬島の 방언이라기보다는 ‘余所行き詞’, 다시 말해서 격식을 차린 말들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前間씨의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交隣須知』라는 책자가 18,19세기라고 하는 시대적 환경과 대마도라고 하는 지역적 환경에서 成立·伝承되어 온 문헌자료인 만큼, 다양한 언어적 측면에서의 시대성과 지역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고찰을 통하여 비로소 보다 객관적인 『交隣須知』의 자료적 가치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3) 『交隣須知』諸異本の 書誌的 特徴 및 系統的 關係에 관해서는 편무진(2005a) 참조. 그리고 『交隣須知』에 관한 일련의 개인연구는 本書의 본문을 동일한 표제어 별로 재구성한 拙著 『諸本対照交隣須知』(2005b)를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음.

2. 交隣須知 卷一(部分) 書写期不明, 卷四(部分) 1852年写 ⇒<沈>
卷三 文政10年(1827)写 ⇒<文>, 天保13年(1842)写 ⇒<天> 沈寿
官家所藏; 沈寿官本
3. 交隣須知 卷一(部分) 書写期不明, アストン旧藏; アストン本 ⇒<あ>

《增補本類》(《增補祖本系》)

1. 增補交隣須知 1卷(卷四) 小田幾五郎修正(1795年), 東京大学史料編纂所所藏;
小田本 ⇒<小>
2. 交隣須知 卷一 弘化3年(1846)写, 卷四 天保13年(1842)写 ⇒<ア>
卷二(部分) 1885年頃写 ⇒<会>, アストン旧藏; アストン本
3. 交隣須知 卷一 白水福治書写 書写期不明(1854年頃?), 対馬歴史民俗資料館
所藏; 対馬本 ⇒<対>
4. 交隣須知 3卷(卷二三四) 中村庄次郎書写(1868年~1873年) 前間恭作摹写本,
ソウル大学校所藏; ソウル大本 ⇒<ソ>
5. 交隣須知 1卷(卷三) 書写期不明, 中村幸彦氏所藏; 中村本
6. 交隣須知 2卷(卷二三) 書写期不明(1880年頃?), 東京大学小倉文庫所藏; 濟
州本 ⇒<濟>
7. 交隣須知 3卷(卷一三四) 久和馬寿書写(1873年), 長崎大学武藤文庫所藏; 武
藤本 ⇒<武>

【刊本】

1. 交隣須知 4卷 浦瀬裕校正增補 明治14年(1881)印行; 初刊本 ⇒<初>
2. 再刊交隣須知 4卷 浦瀬裕校正增補 明治16年(1883)刊行; 再刊本
3. 交隣須知 4卷 宝迫繁勝刪正 明治16年(1883)出版; 刪正本
4. 校訂交隣須知 1卷 前間恭作·藤波義貫共訂 明治37年(1904)刊行; 校訂本
⇒<校訂>

3. 일본 근대시기의 존경표현 체계

『交隣須知』는 본래 일본의 근세, 즉 시기적으로 江戸 上方期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당시 일본 국내의 존경표현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 근대시기의 존경표현(대우표현)에 대해서는 대략 室町時代와 江戸 上方前期, 江戸 上方後期の 3기로 나누고⁴⁾, 특히 존경표현의 체계는 표현형식에 큰 변동이 있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室町時期는 末期, 江戸時代의 上方前期는 元祿期(1688~1704), 上方後期는 化政期(1804~1830)에서의 존경표현 형식에 관

4) 山崎씨는 주로 江戸時期의 경어를 중심으로 다룬 관계로 ‘근세’로 구분하고, 존경표현에 대해서도 ‘대우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일단 ‘근대’와 ‘존경표현’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특별히 江戸時代만을 국한할 경우에는 ‘근세’를 쓰기도 한다.

한 언어변화를 대상으로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山崎1963:762-763 참조).
다음의 표는 山崎(1963)의 <上方期の 존경표현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1】 上方期の 존경표현 체계

敬語		時期	上方前期	上方後期
動詞	言う	大敬語	おっしゃり(れ)ます 仰せられます	おっしゃります 仰せられます
		普通敬語	おっしゃる 仰せらるる	おっしゃる
	行く, 来る 居る	大敬語	ござります お出でなされます おこなされます	ござります お出でなされます おこなされます
		普通敬語	ござる おいでなさる おこなさる	ござる おいでる
助動詞・補助動詞		大敬語	(御)～なされます (御)～遊ばされます (御)～遊します しゃり(れ)ます	(御)～なされます (御)～遊します しゃります
		普通敬語	(御)～なさる (御)～遊ばさる (御)～遊ばす しゃる	お-動詞 なさる しゃる

이 표에 의하면, 주로 文末表現으로서 보통경어에 「ます」를 붙임으로 大敬語, 즉 극존칭으로 대우표현가치를 높여 사용한 江戸時代の 敬語的 特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辻村씨의 지적대로, 天保(1830~1844) 이후 幕末期까지의 존경표현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시기에 존경표현 형식에 큰 동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일본 국내에 확실한 上方資料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⁵⁾. 『交隣須知』의 写本類 특히 増補本類는 筆写 시기 면에서 江戸後期の 上方資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이 시기의 자료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문헌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분류에서의 존경표현이 초간본과 교정본을 거치면서 현대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辻村씨는 일본의 敬語史上 이 天保期를 근대경어의 발생기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경어의 양상은 明治 前期에 前代로부터의 탈피를 시도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질 못하고, 명치시대에서도 後期에 가서야 비로소 근대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辻村1992:399-402 참조).

4. 『交隣須知』의 존경표현

본고에서는 苗代川本을 기준으로 한⁶⁾ 写本類와 刊本類의 존경표현 중에서 특히 동사와 관련한 존경표현 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경어의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는 「いらつやる」(居る), 「おつやる」(言う), 「ご覧なさる」(見る), 「めしあがる」(食べる), 「おぼしめす」(思う) 등과 같은 독립형(교체형) 존경동사나 존경표현의 사용례는 제외하고 그 밖의 일반동사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보조동사나 조동사의 용법도 포함한다. 단, 辻村(1967)가 말하는 소위 素材敬語의 上位主体語(敬称) 「くださる」나 「～てくださる」와 같은 은혜적 표현, 그리고 겸양표현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苗>를 분류의 기준으로 했을 경우의 動詞 述語文에서의 존경표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交隣須知』 동사 술어문의 존경표현

尊敬表現	苗代川本	古写本類	増補本類	初刊本	校訂本
ござる	13	4	38	8	0
ござなさ(れ)る	9	1	40	9	
(さ)しゃる	189	133	448	47	
(ら)れる	11	5	193	160	5
なさ(れ)る	11	8	72	21	13
御～なさ(れ)る	34(3)	22(5)	156(25)	39(7)	39(18)
御～になる					21(11)
御～だ				1	6(4)
御～です					3(1)
御～でござい(り)ます	1	1	6	2	9(1)

위의 표에서 보면, <苗>를 비롯한 사본류에서는 「(さ)しゃる」, 초간본에서는 「(ら)れる」가 존경표현의 대세임을 알 수 있다. 단, 증보본류에서 기존의 「(さ)しゃる」 이외에 「(ら)れる」 「(御)～なさ(れ)る」와 같은 표현형식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겠다. () 안의 숫자는 下二段動詞 「出づ」의 사용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하, 편의상 교정본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과 사용된 존경표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⁷⁾.

6) 苗代川本은 18세기 초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原 「交隣須知」의 古形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古写本이다. 더구나 落本이 없는 상태로 現伝하는 관계로, 『交隣須知』의 통시적 연구에서는 이 <苗>의 언어현상이 기저(基底)가 된다.

7) 교정본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어와 사용된 경어는 敬語의 變遷史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

4-1. 校訂本에서 사용되지 않은 존경표현

『交隣須知』의 존경표현에 대하여 통시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의 異本에서 사용되었던 표현형식들이 교정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ござる」와 「(き)しゃる」(「さっしゃる」)에 의한 존경표현인데, 이것들은 江戸時代 敬語를 특징짓는 표현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交隣須知』에는 전 시대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ござる」와 이 「ござる」계의 「ござなさる」형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1) ござる

「ござる」는 「いる」「ある」「行く」「来る」의 존경이나 공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나 보조동사로 室町時代에서 江戸時代に 걸쳐 널리 사용되었다. 『交隣須知』에서도 다음의 「ござなさる」와 더불어 사본류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존경어적 표현인데, 「ござなさる」에 비하여 그 敬意는 낮다고 할 수 있다. 「ござる」는 주로 불특정 제3자의 上位者에 대한 ‘오다’ ‘있다’의 보조동사로 쓰인 예가 많다. 특히 「ござれ」의 형태로 명령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待遇價值가 약해지면서 공손어적인 표현형식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특징인인 경우의 존경동사 「ござる」의 主体者는 ‘聖人’ ‘勅使’ ‘庶尹’ 정도이다.

[2001]

<苗/二06a>	麒麟	麒麟은 성인(聖人)이 계셔야 나옵니 麒麟ハ 聖人ガ <u>ゴザッテ</u> コソ 出マスル
<ソ/二01a>	麒麟	麒麟은 성인(聖人)이 계셔야 나옵니 麒麟ハ 聖人ガ <u>ゴサッテ</u> コソ 出マスル
<濟/二01a>	麒麟	麒麟은 성인(聖人)이 계셔야 나옵니 麒麟ハ 聖人ガ <u>コザッテ</u> 코ソ 出マスル
<初/二01a>	麒麟	麒麟은 성인(聖人)이 계셔야 나옵니 麒麟ハ 聖人ガ 在マシテコソ 出マス
<校訂/070>	麒麟	麒麟(麒麟)은 성인(聖人)이 계셔야 난다 ्ह오 麒麟ハ 聖人ガ世に出なければらぬといひます。

[3962]

<苗/三69b>	降	느려오시니 ㄹ브시오리 クダッテ <u>ゴサッテ</u> ツカレサシャリマシヨ
<ソ/二79a>	降	느려오옵시니 ㄹ브시오르쇠 下ッテ <u>ゴサッテ</u> ㄹツカレデゴサリマセウ

문에 旧新的 표현형식 순서로 기술한다.

- <初/二56a> 降 내려오시니 ㄹ 부시오리다
 下ッテゴザッテ オツカレテゴザリマセウ
- <校訂/128> 降 내려오시니 ㄹ 부시오리다
 下ッテ御出なすッテ 御草臥でございましょう。
- [4588]
- <苗/四43a> 曲折 곡절을 모로거든 ㅈ ㅈ ㅎ 고 잇습소
 ワケヲ シラスバ ダマッテゴザレ
- <沈/四16b> 曲折 곡절을 모로거든 ㅈ ㅈ ㅎ 고 잇습소
 ワケヲ シラズバ タマッテゴザレ
- <小/四43b> 曲折 곡절을 모로거든 아이에 ㅈ ㅈ ㅎ 고 잇습소
 ワケヲ 知ラズバ 最初ヨリ ダマッテゴサリマセイ
- <ソ/四60a> 曲折 곡절을 모로거든 아이에 ㅈ ㅈ ㅎ 고 잇습소
 ワケヲ シラズハ 最初ヨリ ダマッテゴサレイ
- <武/四57b> 曲折 곡절을 모로거든 ㅈ ㅈ ㅎ 고 잇습소
 ワケヲ シラズバ ダマッテコサレ
- <初/四43a> 曲折 곡절(曲折)을 모루거든 ㅈ ㅈ ㅎ 고 잇습소
 ワケヲ シラズバ ダマッテゴザレヨ
- <校訂/295> 曲折 곡절(曲折)을 모로거든 ㅈ ㅈ ㅎ 고 잇거라
 わけを 知らないなら だまッてゐろ。

이처럼 「ござる」가 본동사보다는 보조동사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 것 또한 그 자체의 대우가치가 약해진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ござなさる

「ござなさる」는 江戸時代に 주로 「ある」「いる」의 존경동사 또는 존경의 보조동사로 사용된 존경어로 歌舞伎나 浄瑠璃 등에 사용례가 보인다⁸⁾. 그러나 이 「ござなさる」는, 가령 『虎明本狂言集』에 1예밖에 사용례가 없을 정도로 당시 口語的 表現으로서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⁹⁾.

* 只今此所へ御座なされ、花を御らんあるべきとの御事にて候(『虎明本狂言集』万葉類 p.187)

이 「ござなさる」는 주로 한국어 ‘계시다’의 対訳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国王’ ‘祖

8) 『日本国語大事典』(第二版)小学館 참조

此の橋の下にこそ班女様も皆々も御座なされ候 <『歌舞伎・出世隅田川』三(1701)>

9) 또한 湯沢幸吉郎가 室町時代の 抄物로부터 歌舞伎·浄瑠璃와 같은 江戸 前期의 上方語 자료와 小説·歌舞伎脚本·落語와 같은 江戸 後期の 문헌자료들 용어를 관찰한 일련의 구어자료에도 「ござなさる」의 용례는 없었다(『室町時代言語の研究』(1981) 風間書房, 『徳川時代言語の研究』(1936) 刀江書院, 『江戸言葉の研究』(1934) 明治書院).

父·祖母'始祖' '姑' 등의 특정 상위자에 대한 존경동사로 쓰이고 있다.

[2473]

- <苗/二42b> 京 서울은 님금 계신지라
ミヤコハ シュクンノ ゴサナサル
- <ソ/二46a> 京 서울은 님금 계신지라
都ハ 国王ガ ゴサナサル
- <濟/二46a> 京 서울은 님금 계신지라
都ハ 国王ガ コサリマスル
- <初/二36a> 京 서울은 인군(人君) 계신 데요
京ハ 国王ガ ゴザナサル 処デアリ
- <校訂/188> 京 서울은 인군이 계신 데요
都ハ 国王の ゐられる 処です。

[1554]

- <苗/一41b> 祖父 조부가 계시온가 조모가 업서 계시온가
祖父ガ ゴサナサルカ 祖母ハ ゴサナサランカ
- <ア/一48a> 祖父 조부가 계시온가
祖父カ ゴサナサレルカ
- <対/一47b> 祖父 조부가 계시온가
ヂ、サマガ ゴサルカ
- <武/一48b> 祖父 조부가 계시온가
ヂイガ ゴザナサレ마스ルカ
- <初/一38b> 祖父 조부가 계신가 아니 계시온가
ヂ、ガ 在マスク 在マサレマセヌカ
- <校訂/093> 祖父 조부(祖父)가 계시오 아니 계시오
おぢいさんはおあんなさいますか。

당연히 「ござる」에 비하여 대우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형용사나 형용동사의 존경표현을 위한 보조동사로 사용된 예도 일부 보인다.

[1503]

- <苗/一37b> 王 님금은 천하성주시라 기특(奇特)히 시느니
国王ハ 天下ノ 聖主 キトクニゴサナサレ마스ル
- <ア/一44a> 王 님금은 일국지왕이라 각々 나라를 직회야 계시니라
国王ハ 一国之王デ 各国ヲ 守テコサナサル
- <対/一44a> 王 님금 一国之王이라 각々 나라를 직회여 계시옵니
国王ハ 一国ノ王デ ヲノ、ノ 国ヲ 守テコサナサル
- <武/一45a> 王 님금은 一国之王이라 각々(각々) 나라를 직회여 계시옵니
国王ハ イッコクノ(王)デ (各々) 国ヲ 守テコサナサレ마스ル
- <初/一35a> 王 인군(人君)은 일국지왕이라 각각 나라를 직회여 계시니라
国王ハ 一国之王デ 各々 国ヲ 守リテゴザナサル

<校訂/145> 王 임군은 일국(一國)의 왕(王)이라 각각(各々) 나라를 직히
여 계시니라
君主は 一國の 王で 夫々 一國を 守って居られる。

이 「ござなさる」는 『捷解新語』의 重刊本(1781)에도 7예가 보이는데, 이것은 당시의 경어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 보다 존경스럽게 말하려는 표현의도의 결과로 보인다(安田1973:322 참조).

*かねて さんしの御ござなさる ところも ねんお いて(6:23a)

이처럼 『交隣須知』의 사분류에서 존경어 「ござなさる」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ござる」의 恭遜語化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때까지 존경어로 사용되어 온 「ござる」가 근세시기에 공손어화함에 따라서 「ござる」의 존경어로서의 기능이 「ござなさる」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편무진2005:312).

물론 증보분류는 異本數가 많기 때문에 증보분류에서의 「ござなさる」의 사용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면이 있다. 그러나 『交隣須知』라는 책자는 본래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편집된 학습서이다. 일본인 학습자(필사자) 입장에서 외국어에 해당하는 본문의 한국어문보다는 対訳의 일본어문에 상대적으로 당시의 모국어(일본어)가 반영되기 쉬웠을 것을 감안하면(浜田1970:31-32 참조), 이 「ござなさる」는 江戸 後期の 口語的 現像의 일면으로, 증보분류에서 그와 같은 당시의 언어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지 「ござなさる」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현상에 대해서도 『交隣須知』의 증보분류를 일본 국내의 문헌자료 중 특히 부족한 江戸 후기의 자료적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구어자료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交隣須知』에서는 전 시대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는 존경동사 「ござる」의 사용례가 필사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증보분류에서의 「ござなさる」는 전통적인 「ござる」계 존경표현 형식의 쇠퇴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시의 언어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초간본에서 여전히 사용례가 보이는 것은 명치시기의 규범의식과 더불어 다소 보수적인 편집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교정본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3) (さ)しゃる

『交隣須知』의 필사본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존경어는 「しゃる·さしゃる」이다. 이 「(さ)しゃる」는 특히 江戸 前期의 上方語에서 多用되었고, 後期の 江戸

語에서는 무사계급이나 승려·학자와 같은 準武士階級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村松1984:47-48 참조). 이 「(き)しゃる」는 苗代川本·古写本類는 물론 増補本類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刊本類에서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대신 「(ら)れる」로 교체되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불특정 제3자에 대한 명령표현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대우표현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 같다.

[3324]

<苗/三23b>	顧	도라보고 뒤흘 <u>畚</u> 피옵소 カエリミテ ウシロヲ <u>ワキマエサ</u> シャレイ
<天/三23b>	顧	도라보고 뒤흘 <u>畚</u> 피옵소 カエリミテ ウシロヲ <u>ワキマヘサ</u> シャレ
<文/三23b>	顧	도라 뒤흘 <u>솔</u> 피옵소 ウシロヲ <u>カヘリミサ</u> シャレイ
<ソ/三53a>	顧	도라보고 뒤흘 <u>畚</u> 피옵소 カエリミテ 後ロヲ <u>ワキマエサ</u> シャレイ
<濟/三53a>	顧	도라보고 뒤흘 <u>畚</u> 피옵소 カヘリ見テ 後ロヲ <u>ワキマヘサ</u> シャレイ
<武/三49a>	顧	도라보고 뒤흘 <u>畚</u> 피옵소 カエリ見テ ウシロヲ <u>ワキマヘサ</u> シャレイ
<初/三36a>	顧	도라보고 뒤를 <u>솔</u> 피옵소 カヘリミテ ウシロヲ <u>ワキマヘラ</u> 레마セ
<校訂/126>	顧	도라보고 뒤를 <u>畚</u> 히시오 振り返って 後ろを 気を御つけなさい。

또한 「(ら)れる」에 의한 존경법은, 고사분류에서는 사용례가 적은 수에 불과하던 것이 증보분류에서 큰 폭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4093]

<苗/四06a>	愛	스랑히시니 감격히외 カワヒカラ <u>シャレ</u> テ カタシケノフコサル
<小/四08a>	愛	스랑히시니 감격히외 カハユガラ <u>レ</u> マシテ 忝ウゴサリマスル
<ソ/四10b>	愛	스랑히시니 감격(感激)히외 カハユガラ <u>レ</u> 마시テ 忝ウゴサリマスル
<ア/四10b>	愛	스랑히시니 감격히외 カハユガラ <u>レ</u> 테 恭ウゴザル
<武/四10a>	愛	스랑히시니 감격히외 カワユガラ <u>シャレ</u> 테 カタジケノウゴザル
<初/四08a>	愛	스랑히시니 감격(感激)히외다 アイセ <u>ラ</u> 레테 カタジケノウゴザル

<校訂/278> 愛 아모리 사랑흔들 흥(凶)좃차 모르겝소
どれほど可愛いからって わるい処まで 分からずにいやし。

증보본류 중에서도 小田本の 성립시기가 18세기 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를 포함한 이후의 江戸 후기에서는 존경표현으로 「(ら)れる」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증보본류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현상은 江戸 時期的 존경표현 형식이 「(さ)しゃる」에서 「(ら)れる」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필사본류에서 「(さ)しゃる」의 사용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上方語의 영향권 내에 속하기 때문이겠지만, 原「交隣須知」가 雨森芳洲에 의하여 성립된 이후 역시 村馬島 출신의 通事들에 의하여 筆写·伝承된 경유로부터 방언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

4-2. 校訂本에서 사용된 존경표현

江戸時代の 존경표현이 점차 「ござる」 「(さ)しゃる」에서 「御~だ」 및 「御~なさる」 형식, 즉 「お出でだ」 「お書きなさる」 식의 표현으로 바뀌게 되면서 말기에는 이 표현형식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辻村1951:260). 이후 명치시기에서는 「御~あり」 「御~なる」 「御~になる」와 같이, 동작의 直叙를 피하여 존재·성립을 나타내는 완곡·간접의 표현법이 술어문 존경표현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辻村1992:308 참조). 증보본류에서 「御~なさる」형식의 존경표현이 두드러지고, 교정본에서 「御~になる」형식이 자주 사용된 것 역시 각각 당시의 경어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1) (ら)れる

「(ら)れる」는 특히 江戸期 이후 현대까지도 많이 사용되어 온 존경의 조동사이다. 이 「(ら)れる」의 성격에 관해서는, 일찍이 室町 末期의 정황을 기록한 로드리게스가 『日本大文典』(p.581)에서 「いくらか畏敬又は尊敬を払ふに値する人々に就いて、主にその人の居ないところで話す場合に使ふのが常である」라고 하여 그다지 待遇도가 높지 않은 제3자(상위자)에게 사용된 것이 주된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江戸 前期의 上方語에서도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동사에 붙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그다지 높은 경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坂梨 1987:232). 이후 江戸 後期를 거쳐 명치시대에도 「(ら)れる」가 어느 정도 심리

10) 이 「(さ)しゃる」는 방언적으로는 九州北部에서 熊本県에 걸쳐 분포하고(上村1970:76), 대마도에 있어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小倉1915:51).

적인 거리가 있는 상위자에 대하여 그 사람을 제3자로서 대우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었다¹¹⁾. 또한 이 「(ら)れる」에 의한 尊敬語法은 오늘날에는 주로 회화문보다는 문장체에서 주로 사용되는데(坂梨1987:230), 그 점 역시 역사적으로 이처럼 일정한 장면적 정황에서 사용되어 온 제3자(소재) 대우로서의 「(ら)れる」의 성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交隣須知』의 경우, 증보본과 초간본에서는 「(ら)れる」의 용법이 많은 것이 비하여 교정본에서는 소수의 사용례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초간본이 상대적으로 문장체적인 것이 비하여 교정본은 회화체적인 본문으로 대폭 수정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531]

- <苗/一40a> 任 소임(所任)은 무슨 소임(所任)을 지내엿습던고
ヤクギハ ナニヤクヲツトメサシヤッタカ
- <ア/一46b> 任 소임은 엿던 소임을 지내엿습던가
役ハ トウシタ ヤクヲ스キラレマシタカ
- <対/一46a> 任 소임은 무슨 소임을 지내엿습는가
ヤクハ ナニヤクヲ스ギラレマスルカ
- <初/一36b> 任 소임(所任)은 무슨 소임을 지니신잇까
ツトメハ 何ノ ツトメヲ스グサレマシタカ
- <校訂/149> 任 소임(所任)은 무슨 소임(所任)을 지내엿소
役ハ 何役をして御出でしたか。

초간본이 성립한 明治 前期는 日本語史的으로 東京語의 형성시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아직 江戸語가 공통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던 시기이다(松村1957:20). 초간본에서 「(ら)れる」의 용법이 많은 것은 그러한 江戸語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2) (御)~なさ(れる)

전술한 바와 같이 江戸 末期에 많이 사용되었던 「御~なさる」의 존경표현은 명치시기에 들어서 더욱 일반화 하게 된다(辻村1951:260). 이 「御~なさる」는 초간본에서 여전히 나타나며, 특히 교정본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존경표현 형식이다.

『交隣須知』에서는 존경의 접두어 「御」가 붙은 경우와 붙지 않은 경우가 있다¹²⁾. 그리고 뒤의 「なさる」도 「なされる」의 형태가 같이 사용되었는데, 특

11) 金沢(1998:299)에 의하면, 明治 中期의 速記本 資料의 경우에도 「れる·られる」는 아는 사이이기 는 하지만 약간 심적 거리가 있는 同等 혹은 上位者에 대하여 그 사람을 제3자로서 대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중심적인 용법이었다고 한다.

12) 室町時期에서는 보조동사 「なさる」 앞에 「お」가 붙어 大敬語 즉 극존칭으로 사용되었지만, 江戸時代에 와서는 「お」를 붙이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양자 사이의 대우표현가치는 거의 동

히 교정본에서는 현대어와 같은 「なざる」로 통일되고 1段動詞의 「なされる」은 1예에 불과하다.

[3934]

- <苗/三67a> 去 가시다가 도로 오옵쇼셔
ユカシャレテ マタ ヲイテナサレマセイ
- <天/三67a> 去 가시다가 도로 오옵쇼셔
ユカシャレテ マタ ヲイテナサレマセイ
- <ソ/二76a> 去 가옵시니 결연(欠然)히여 히옵느이다
ヲカエルナサルニヨリ ノコリ多ウ 存シマスル
- <濟/二76a> 去 가옵시니 결연(欠然)히여 히옵느이다
ヲカエリナサルニヨリ ノコリヲウ 存マスル
- <初/二54a> 去 가시니 결연(欠然)히야 히옵니다
オカヘリナサルニヨリ 残り多ク 存ジマス
- <校訂/128> 去 가시니 결연(欠然)히여 히옵니다
御歸りなさいますので 御名残惜しうございます。

[3430]

- <苗/三31b> 謫 귀향 보내엿다가 지과(改過)히거든 샤히옵소
ルサイニヤッテ アヤマチヲアラタメタラハ ユルサシャレイ
- <武/三60a> 謫 귀향 보내엿다가 지과히거든 샤히게 히옵소
ルザイニヤッテ 過ヲ改タラバ ユルスヤウニ サシャレイ
- <初/三44b> 謫 귀양 보내엿다가 지과히거든 샤히게 히옵쇼셔
流罪ニヤリテ 改過ヲタラバ 赦スヤウニ ナサレマセ
- <校訂/156> 謫 귀양 보내엿다가 지과(改過)히거든 샤(赦)히게 히옵시오
流罪にして置いて 改心したら 赦しておやりなさいまし。

또한 이 「なざる」은 「なさい」라는 명령형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아울러서 위의 예처럼 「御～なさいまし」와 같은 구어체적 명령표현 형식이 교정본에 23예나 보인다.

(3) 御～になる

현대 공통어의 대표적 존경표현인 「御～になる」은 본래 武家の 문장어 계통을 잇는 것으로 江戸時代 末期에 하나의 존경표현 형식으로 성립되었으나, 이것이 口頭語로서 일반화 된 것은 명치20년대 이후이다(辻村1951:271).

명치20년부터 30년대의 작품 중에서 동작에 관한 경어표현의 표현방식을 辻村씨가 표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辻村1992:409), 명치시대의 경어에 관한 유익한 史的研究資料가 된다. 그 표 중에서 『浮雲』(명치20~22년)와 『いき草』(명치30년)의 자료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명치2,30년대 작품에 나타나는 동작에 관한 경어 표현형식

表現形式	作品	浮雲	うき草
御~あそばす		1	9
御~になる		0	13
御~なさる		93	77
御~です		2	9
御~だ		51	17
…なさる		11	13
…(ら)れる		0	9

「御~なさる」 형식이 양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형식이 당시의 존경표현 형식으로 가장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편 「御~になる」 형식은 명치20년대의 『浮雲』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30년대의 『いき草』에는 13예가 사용되고 있어 당시의 추이를 엿볼 수 있다¹³⁾. 현대일본어의 전신인 東京語的인 존경표현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交隣須知』의 초간본(명치14년)에 사용례가 보이지 않았던 「御~になる」 형이 명치37년의 교정본에 다수 사용되고 있다. 교정본은 그러한 언어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85]

- <苗/四34b> 遞 마라 가시니 모든 사람이 앓기옵네
カワッテ ユカシャルニヨリ ミナノ 人ガ ヲシマスル
- <小/四47a> 遞 마라 가시기로 모든 사람이 앓기옵네
カハッテ ヲカエリナサルユエ 皆 人 ヲシマスル
- <ソ/四64b> 遞 마라 가기로 모든 사람이 앓기옵네
カワッテ ヲカエリナサルニツキ ミナノ 人ガ ヲシマ스ル
- <武/四47a> 遞 마라 가시니 모든 사람이 앓기옵네
カワッテ ユカシャルニヨリ ミナノ 人ガ ヲシマスル
- <初/四36a> 遞 마라 가시니 모든 백성이 앓기옵네
代ッテ オカヘリナサルニヨリ 皆ノ 百姓ガ ヲシマス
- <校訂/150> 遞 줄녀 가시니 모든 백성(百姓)이 앓기옵네다
御かはりになりましたので 人民が皆 惜しがってゐます。

그리고 이 「御~になる」 형식의 사용례 중 반 정도는 현대어의 「行く·来る·出る」 의미를 가지는 下二段動詞 「出づ」의 존경표현 「おいでになる」이다. 본고에서는 이 「おいでになる」를 독립형으로 다루지 않은 관계로 존경표현 형식의 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교정본 당시에 도 江戸時代로부터의 「御~なさ

13) 『いき草』에서 「御~あそばす」의 사용례가 증가한 것은 이 작품이 귀족사회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辻村1992:411).

る」형식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御~になる」형식이 새로 도입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辻村씨가 앞서 조사한 당시의 경어표현 형식의 추이와 대략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동시에 교정본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표현형식의 사용례가 보인다고 해도, 사본류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본류의 「居る」「見る」와 같은 기본동사가 「いらっしゃる」「ご覧なざる」와 같은 독립형(교체형) 존경동사나 표현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간본까지의 「(さ)しゃる, (ら)れる, なざる」등에 의한 존경표현 형식의 출현 빈도수에 비하여 교정본에서의 존경표현 형식의 총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기본동사류의 독립형 존경동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交隣須知』 기본동사류의 독립형 존경동사

尊敬動詞	異本	苗代川本	古写本類	増補本類	初刊本	校訂本
居る	いらっしゃる				1	10
言う	おっしゃる おおせられる	1		1 6		1
思う	おぼしめす	1	1	7		1
見る	ごらんなざる ごらうじる ごらん ごらんです	1	1	1 4	1 2	40 3 1
食べる	めしあがる あがる			2	1	1
会う	おめにかかる		2	3	2	7

이 중 「いらっしゃる」는 上方語가 아니라 江戸語로서 새로이 성립된 것이다(小松1985:112). 특히 교정본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당시 「居る, 行く, 来る, 見る」와 같은 기본동사류는 일정한 형식을 빌린 존경표현보다는 독립형 존경동사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현대어와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4) 御~だ

「御~なざる」의 경우와는 달리, 江戸 末期의 대표적인 존경표현 형식 중의 하나인 「御+동사연용형+だ」계의 존경표현은 『交隣須知』에서 그다지 일반

14) 朴重華의 『修正増補日語大海』(1912)에 다음과 같은 사용례가 보인다.

先達から奥様が御病氣ださうでしたが、此の頃は御直りに成りましたか。
前者부터 貴夫人이 病患이라드니 近者에는 닳지게 되야습닛가 <156>

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단, 특히 사본류에서 문말에 조동사「ます」와 같이 사용하여 대우표현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은 근세시기 경어법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명사(혹은 형용동사의 어간)와 같이 쓰여 ‘단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でござる」 형식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증보본류에서의 「~でござります」가 초간본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존경표현이 「(ら)れる」나 「御~なさる」와 같은 표현형식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명치시대 초기에 있어서 아직 「御~なさる」가 영향력 있는 존경표현 형식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交隣須知』에 나타나는 일본어의 존경표현은, 고사본류의 「(さ)しゃる」, 증보본류의 「(さ)しゃる」 「(ら)れる」 「(御)~なさ(れ)る」 등에 의한 존경표현이 초간본에서는 「(ら)れる」로 통합되고, 그것이 교정본에서는 「御~になる」 및 「御~だ」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존경표현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의 경향성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5. 마무리

『交隣須知』의 일본어가 전체적으로는 당시의 공용어적인 언어현실을 반영하면서 전승되어 왔다는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각 시대어별로 특징적인 존경표현을 중심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交隣須知』는 각 이본별로 당시의 존경표현의 변화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필사본들은 江戸時代の 上方語를, 苗代川本을 비롯한 고사본류는 대략적으로 江戸 前期의 上方語, 증보본류는 江戸 後期の 上方語를 반영하는 문헌자료로 분류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초간본에서는 사본류의 上方語的 요소가 쇠퇴하면서 다른 존경표현 형식으로 교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또한 당시의 일반적인 언어현실, 즉 上方語에 대한 江戸語라는 시대언어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교정본이 성립된 명치 후기는 현대일본어의 전신인 東京語가 확립된 시기로, 교정본에는 당연히 현대어적인 요소를 많

<濟//二80a> 出入	デイリガ シゲシウゴサル 출입이 빈々히외
<初/二57a> 出入	デイリガ シゲシウコサル 출납(出入)하여 계시오 オデチガヒデゴザリマス
<校訂/129> 出入	출입(出入)하여 계시오 御留守でございますか。

이 담고 있다. 이와 같이 『交隣須知』의 통시적 연구를 통하여 사본류에서의 존경표현이 초간본과 교정본을 거치면서 현대어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交隣須知』는 日本語史에서의 上方語와 江戸語, 그리고 현대일본어의 기반이 되는 東京語로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江戸語라 하더라도 上方語的 요소가 포함되는 등 兩者를 확연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면도 존재하다¹⁶⁾.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언어현상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다 객관적인 『交隣須知』의 자료적 가치가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16) 가령 사본류에서 사용되었던 指定의 助動詞「ぢゃ(じゃ)」가 초간본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上方語의 「ぢゃ(じゃ)」에 대하여 江戸語의 특색이라고 말해지는 「だ」는 초간본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한편 역시 江戸語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原因·理由를 나타내는 「から」도 초간본에 2예밖에 사용례가 없는 반면에 苗代川本에는 초간본보다 많은 3예, 증보본류에는 총 13예의 사용례가 보인다. 그리고 이 「から」는 교정본에서 350여 개의 사용례가 보일 정도로 일반적인 원인·이유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齋藤(2002:152)도 일부 문법사항의 예를 들어 『交隣須知』의 일본어를 上方語와 東京語로 단순히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小倉進平(1915) 「対馬方言(下)」 『国学院雑誌』 21-3, pp.49-58
_____ (1936) 「『交隣須知』に就いて」 『国語と国文学』 13-6, pp.1-16
金沢裕之(1998) 『近代大阪語変遷の研究』 和泉書院
上村孝二(1970) 「九州方言の諸相」 『鹿児島短期大学研究紀要』 12, pp.71-84
小松秀雄(1985) 『江戸時代の国語(江戸語)』 東京堂出版
斎藤明美(2002) 『『交隣須知』の日本語』 至文堂
坂梨隆三(1987) 『江戸時代の国語(上方語)』 東京堂出版
辻村敏樹(1951) 「『お…になる』考」 『国文学研究』 25 (『敬語の史的研究』 所収.
pp.251-275)
_____ (1992) 『敬語論考』 明治書院
土井忠生訳(1955) 『ロドリゲス 日本大文典』 三省堂
松村 明(1957) 『江戸語東京語の研究』 東京堂出版
_____ (1977) 『近代の国語—江戸から現代へ—』 桜楓社
安田 章(1973) 「重刊改修捷解新語解題」 『三本対照捷解新語积文·索引·解題篇』
浜田 敦(1970)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研究』 岩波書店
山崎久之(1963) 『国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近世編)』 武蔵野書院
湯沢幸吉郎(1981) 『室町時代言語の研究』 風間書房
_____ (1936) 『徳川時代言語の研究』 刀江書院
_____ (1934) 『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_____ (1954) 『増訂江戸言葉の研究』 明治書院
片茂鎮(2005a) 『『交隣須知』の基礎的研究』 제이앤씨
_____ (2005b) 『諸本対照 交隣須知』 제이앤씨
_____ (2006) 「『により』考」 『表現研究』 84. pp.38-46, 表現学会
_____ (2007) 「『交隣須知』日本語の特殊性」 『比較文化研究』 74. pp.1-9, 日本比較文化学会
_____ (2008) 「苗代川地方伝来朝鮮語学習書類の日本語の地域性について」 『比較文化研究』 84. pp.81-91, 日本比較文化学会
_____ (2010) 「『交隣須知』筆写本과 刊行本の 일본어 어휘 비교」 『일본문화학보』 45, pp.47-66, 한국일본문화학회
_____ (2012) 「刊本類『交隣須知』에 의한 한일 근대어의 통시적 연구」 『일본문화학보』 55, pp.95-116
_____ (2014) 「『交隣須知』를 통한 일본어의 통시적 연구(1) —副詞語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61, pp.63-81

要 旨

『交隣須知』における日本語の尊敬表現を通時的観点から眺めた場合、苗代川本をはじめとした古写本類の「さしやる」、増補本類の「さしやる」「られる」「(御)~なさ(れ)る」などによる尊敬表現が初刊本では「られる」に統合され、それがまた校訂本では「御~になる」および「御~だ」系を中心とした多様な尊敬表現形式で現れるということを一つの傾向として捉えることができた。そして、各異本別に当時の言語の変遷相がよく反映されていると言える。まず、筆写本類は江戸時代の上方語を反映するものとして、苗代川本をはじめとした古写本類は江戸前期の上方語、増補本類は江戸後期の上方語を反映する文献資料として位置付けられよう。いっぽう、初刊本は明治前期の文献ではあるものの、上方語の影響圏を抜け切っていない言語現実を反映するものとして、まだ現代日本語の前身である東京語の色彩は薄いと言える。今後、多様な言語現象から初刊本における江戸語的な要素を究明していく必要があろう。そして校訂本は明治後期の言語現象を反映するものとして、現代語的な要素が多く現れている。このような『交隣須知』の通時的な研究を通して、写本類からの尊敬表現が初刊本と校訂本を経て現代語的に変化していく過程を効果的に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交隣須知』は日本語史における上方語と江戸語、そして現代日本語の基盤となる東京語への変化相を反映する資料と言える。

キーワード：交隣須知, 尊敬表現, 上方語, 江戸語, 東京語, 通時的研究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